

보도시점 2023. 10. 19.(목) 08:00 배포 2023. 10. 19.(목) 08:00

피아노 104대의 선율로 '2023 문화의 달' 기념한다

- 10. 20.~22. 전남 신안군에서 '섬, 문화 다양성의 보고'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유인촌 장관, 지역문화 현장과 '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막식 찾아 "지역문화가 세계인을 사로잡을 케이-콘텐츠가 되도록 지원"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0월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23. 10. 21.)*을 맞이해 10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함께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0월 20일(금)과 21일(토), 지역문화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문화의 달'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 1972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지정(「문화기본법」 제12조)

1972년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이후 서울에서 열었던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1993년부터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10. 20.~22. 매일 저녁 자은도에서 이어지는 피아노 공연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열리는 자은도는 1,000여 개에 달하는 신안의 섬 가운데에서도 이국적 해변과 해송 숲 등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문화예술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는 신안군이 '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다양한 피아노 공연을 개최하며 '피아노 섬'을 표방한 곳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 기간(10. 20.~22.)에는 주 행사장인 뮤지엄파크 특설무대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매일 저녁 6시 피아노 공연이 열린다. 10월 20일(금)에는 이번 행사의 총감독인 임동창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가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 연주를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자 104명과 함께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 연주를 펼치고, 이생강 대금 명인, 왕기철·왕기석·이영태 등 판소리 명창이 함께하는 피아노와 국악의 협주가 이어진다. ‘아름다운 피아노 섬, 자은도’는 임동창 총감독이 서남해안 섬 지역의 축제 문화인 ‘산다이*’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곡이다. ‘문화의 달’ 개막식이 열리는 10월 21일(토)에는 신안 어린이합창단의 ‘신안 아리랑’ 합창을 비롯해 104대의 피아노와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 등 국악이 만나는 웅장한 공연을 볼 수 있다. 10월 22(일)에는 사전 신청자와 현장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나도 피아니스트’ 공연이 꾸며진다.

* 고려시대 산대희(山臺戲, 큰길가 임시무대에서 행해진 탈놀음)가 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남녀 노소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서남해안 도서·연안 지역축제 문화

행사 기간에 뮤지엄파크는 무료로 개방되며, ‘인공지능(AI) 피아노 전시’와 19세기 제작된 ‘고미술 피아노 전시’도 열린다. 또한 행사장과 라마다호텔, 무한의 다리 등 자은도 주요 지점에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곳곳에서 즉흥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섬, 문화 다양성의 보고’를 주제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즐길 거리도 마련

이번 ‘문화의달’ 기념행사에서는 피아노 공연 외에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안 산다이 야외공연(10. 21.), ▲설치미술가 제임스터렐 아티스트 토크(10. 21.),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10. 21.), ▲청춘마이크 거리공연(10. 21.), ▲비보잉 페스티벌(10. 22.) 등도 진행한다. 또한 ‘신안의 미식’도 즐길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해산물과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트럭’을 운영하고 ‘제1회 김밥페스타’ 등도 개최한다.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문화의 달’ 공식 누리집(www.culturemon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 신안과 남원, 광주 현장 찾아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 강조

유인촌 장관은 ‘문화의 달’ 행사 현장을 찾아 지역문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10월 21일(토) 2021년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군 ‘퍼플섬’을 둘러보고, ‘문화의 달’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문화대상’에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지역문화대상’ 수상자로는 지역의 문화명소·콘텐츠·인물 등 100가지의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한 ‘로컬100’ 중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활용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등 세 곳을 선정했다.

유인촌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가진 소중한 문화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세계인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케이(K)-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행사 하루 전날인 20일(금), 남원 국립민속국악원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문화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한다.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이어지는 ‘문화의 달’ 행사

‘문화의 달’ 기념행사와 함께,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전시와 공연, 축제 등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10. 1.~31. 전국), ▲2023 공공디자인 페스티벌(10. 20.~29. 전국), ▲2023 한복문화주간(10. 16.~22. 서울), ▲청와대 <사철사색-전통연회> 공연(10. 26.~28.) 등을 개최한다. 국립문화시설*은 선선한 가을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개장을 운영하고 조선왕릉 9개소는 조선왕릉 문화제(10. 13.~22.)를 선보인다.

* 국립김해박물관(10. 21.), 국립민속박물관 파주(10. 27.~28.), 경복궁(9. 1.~10. 29.), 현충사(10. 21.~22.)

아울러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재 야행>(10. 21.~22.), ▲진주 남강 유등축제(10. 8.~22.),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10. 28.~29.),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10. 20.~29.), ▲서귀포 글로컬페스타(10. 27.~28.)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알리는 축제와 행사도 열린다.

10월 전국 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 내 ‘문화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3 문화의 달' 행사 개요

2. 지역문화대상 개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담당자	사무관	지나은 (044-203-263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책브리핑



□ 행사 개요

- (추진배경)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매년 문화의 달(10월) 및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지정, 문화의 날 기념식 개최('72년~)
- (일시/장소) 2023. 10. 20.(금) ~ 10. 22.(일) / 신안군 자은도
- (주제) 섬, 문화다양성의 보고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 2023 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원회

□ 주요 내용

- (개막식 및 주제공연) 피아니스트 임동창의 신안 주제 창작곡 연주, 국내 최대 규모 피아노 오케스트라 연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독보적인 피아노 공연 선사
- (국제 학술행사) 세계 '섬' 주민들의 삶의 지혜와 사례를 한데 모아 섬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공유하는 국제포럼 개최
- (전시) 신안 섬 생활을 담은 작품 전시, 인공지능(AI) 피아노 전시, 고미술 피아노 전시 등
- (신안의 미식) 신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푸드트럭 운영

<주요 프로그램>

테 마	주요행사	행사내용
예술로	·개막식 및 주제공연(10.21) ·마당극, 비보잉(10.22) ·주민참여 공연(10.20~22)	- 104대 피아노 오케스트라 콘서트 - 나도 피아니스트 (관객참여형) - 신안 소재 마당극("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 - 보라해 댄스페스티벌(비보잉) - 어린이 합창단, 강강술래 등 주민 참여공연
미래로	·학술행사(10.20~21)	- 제임스 터렐 간담회(10.21, 라마다호텔) 등 - 세계 섬문화 다양성 포럼(10.21, 아시아 8개국)
바다로	·신안의 미식(10.21~22)	- 신안 로컬 식재료 활용 푸드트럭 운영 - 제1회 김밥페스타 개최
부대행사	·신안 섬문화 관련 아카이빙 전시(10.20~22, 둔장 마을미술관)	

※ 행사 관련 문의 : www.culturemonth.kr / 061-240-6149(문화의달 행사 추진위원회)




www.문화의달.한국
www.culturemonth.kr

섬,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의 보고

2023 대한민국 문화의달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신안군
2023년 10월 20일(금) ~ 22일(일)
신안군 자은도 뮤지엄파크

□ **사업 개요**

- (배경)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위해, 지역 문화 매력자산 발굴·육성·확산 필요
 -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문체부, 2023.3.)] 지역문화대상을 확대·개편하여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자원을 선정·포상·홍보 지원
- (내용) 기존 지자체 대상 정책적 지원에 따른 문화정책 우수사례 선정·포상을 넘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매력 발굴·홍보 추진

[지역문화대상 추진 경과('21년~)]

- (목적) 지자체 지역문화우수 혁신사례 발굴·확산 / 문체부 장관상 시상
- (선정결과) `21년(문화자치 1곳, 문화포용 1곳), `22년(우수상 2곳)
 - (21년) 서울시 서초구 클래식 음악 문화도시, 경기 시흥시 비대면 원스톱 창작 시스템 구축
 - (22년) 충남 청양군 '그려봐유, 청양!' 청양터미널갤러리 운영, 광주 동구 '미로센터 공공시설 운영

□ **2023 지역문화대상 선정 결과**

- (방향) 지역만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문화시설·프로그램, 로컬콘텐츠, 로컬스토어 등 100개를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로컬 100 중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문화대상 3개 선정
- (절차) 전국 지자체 및 국민발굴단 후보군 추천(7~8월/461곳 추천) → 1차·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로컬100 선정(9월) → 로컬100 중 상위 10곳 대상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문화대상] 선정(10월)
- (심사기준) ▲매력성·특화성·지역문화 연계성,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지역주민 및 방문객 방문·향유 영향력,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 (선정결과)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하회마을, 대전성심당
- (선정혜택) 문체부 장관상 시상, 국내외 홍보
 - *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의 대국민 사연 공모(10.17.~11.12)로 지역문화대상 홍보
- (시상식) 2023 문화의달 개막식(10. 21./문체부 장관)

□ [참고] 2023 지역문화대상 소개

지역문화대상	지역문화적 가치	관련 사진
<p>진주 남강 유등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92년 진주대첩에서 왜군을 저지하고 병사들이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유등(燈)'을 기반으로 축제 개발 • 1949년 개천예술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로 발전 • 소망등(4만명), 유등띄우기(2만 1천명)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 • 유등만들어 띄우기, 소망등 터널, 남강 수상등, 수상 불꽃놀이 등, 매년 200만명 방문 • 유등전문연구소 설립, 유등테마공원 조성, 유등 임대사업 추진 등 유등의 산업화 추진 	 <p>[진주남강유등축제]</p>  <p>[소망등 달기]</p>
<p>안동 하회 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천서원, 병산서원, 징비록, 유교책판 등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선유줄불놀이 등 재미와 감동을 주는 놀이문화 등 마을 전체가 전통문화를 만날 수 있는 지붕없는 박물관 • 하회별신굿탈놀이 참여, 하회선유줄불놀이 숯봉지 만들기, 삼신당 소원지 달기, 고택스테이 등 단순 관람이 아닌 직접 참여하는 지역문화로 발전 • 탈(근심, 걱정, 치유 등) 스토리가 담긴 '하회탈빵', 안동소주, 안동문어, 안동국시 등 안동 하회마을의 스토리가 담긴 음식까지 다양한 문화경험 제공 	 <p>[하회선유줄불놀이]</p>  <p>[하회별신굿탈놀이]</p>
<p>대전 성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6년 대전역 앞 찌빵집으로 시작해, 한달에 약 6천만원 가량의 빵을 70여곳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대전 향토 제과점으로 발전 • 오직 대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빵'으로 대전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심당문화원을 지역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 - 대전문화재단과 함께 대전의 무형자산으로 성심당 기획전 개최('23.3월) -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대전 빵축제 등 도시관광 활성화에 참여 • 지역대학 우송정보대 '2021 성심당 마이스터클래스'를 개설하여, 현장실습-취업연계-청년일자리 창출 역할 • 공주의 밤, 논산·무주의 딸기 등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지역농가의 농산물 약 94억원('23.1~8월 기준) 구매로 빵 생산 	 <p>[성심당]</p>  <p>[성심당문화원]</p>